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노 혜 련** · 김 형 태*** · 이 종 익****

초 록

연구는 가출청소년들 중 길거리에서 지내는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등에서 보호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9개 가출청소년보호시설과 서울시내 도심지역의 길거리에서 만난 총 150명의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자보다 여자가, 그리고 가출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길거리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이 자살생각과 행동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과 행동에는 가출 후 음식을 못 먹도록 강요당한 경험(음식학대)이 있는지 여부, 가족 중 약물경력이 있는지 여부, 가족원에 의한 성학대 경험이 있는지 여부, 우울성향의 정도, 그리고 친구 중에 자살을 시도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가출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전략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가출, 가출청소년, 자살, 청소년자살

* 이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강사

**** 송과공업고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

I. 문제제기

자살은 인류역사 이래 시대와 지역을 넘어 발생해왔으며, 최근에는 자살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그 중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은 사고사 다음으로 높은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통계청, 2004: 12-13).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 자살 건수의 약 30% 정도가 청소년들이며, 2001년 10~19세 사망자 총 1,783명 중 자살자는 264명인 13.5%로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1991년의 155명에 비해 약 70%가 증가한 것이며(문화관광부, 2002: 19-20), 주요 사인별 국제비교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4위에 해당하여(통계청, 2004: 36) 청소년 자살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우울감과 분노, 미래에 대한 절망감 및 정서적 충동성이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연구(박경애·구본용·김원중·송종용, 1993; 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 1990)와 가족이나 친구 및 학교생활 중 시험이나 친구관계의 문제 및 폭력경험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연구(최태산, 1997; 하상훈, 2000; 하연희, 2000)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들은 심리·정서적 측면과 사회환경적 측면 모두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살의 위험에 보다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가족이나 학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출청소년을 제외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일반청소년은 물론 자살에 있어 위험집단으로 여겨지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살시도율이 26~37%로 나타나(Rotheram-Borus, 1993: 105-106; Yoder, Hoyt & Whitbeck, 1998: 757) 일반청소년 3~14%(Wagner &

Cole, 1995: 358-372)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7~22%(Andrew & Lewinsohn, 1992; Brent, Kalas, Edelbrock, Costello, Dulcan & Conover, 1986: 666-673),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의 19.4%(Rohde, Seeley & Mace, 1997: 164-175)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출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위험수준이 매우 높을 것임을 추측케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정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가출청소년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위기개입 차원에서의 사회사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자살 현황

청소년자살과 관련된 통계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청소년 자살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광범위한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생 중 남학생의 88%, 여학생의 98%가 한번 이상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며, 중학생은 75%, 초등학생은 67%가 한번 이상 자살생각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애 외, 1993: 18-19). 서울시 중학생 3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66%, 여학생의 79%가 자살생각을 한번 이상 해본 것으로 나타났다(하상훈, 2000: 42).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 자살생각과 행동은 어느 소수의 학생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초등학교 시절의 어린 나이 때부터 이미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은 11~20세 청소년의 연도별 자살

자 수가 1993년에 497명에서 2002년에 756명으로 52%나 증가하여 지난 10여 년간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성인자살자 증가율인 27%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표 1> 청소년(11~20세)의 연도별 자살자수 및 증감율

명(%)

년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자살	7,608	7,451 (-2.1)	7,709 (3.5)	8,632 (12.0)	9,109 (5.5)	12,458 (36.8)	7,075 (-43.2)	6,460 (-8.7)	6,867 (6.3)	9,631 (40.3)
청소년 자살	497	428 (-13.9)	476 (11.2)	615 (29.2)	643 (4.6)	610 (-5.1)	663 (8.7)	696 (5.0)	712 (2.3)	756 (6.2)

(문화관광부, 2002: 19-20)

하지만 청소년 자살은 실제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을 기도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약물복용이나 동맥절단 등과 같이 시간적으로 구조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살 시도 후에 발견되기 쉬운 실내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은 삶에 대한 완전한 포기라기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시도는 진정으로 죽음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사회에 대해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석재호, 1979: 39-50).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속한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일시적인 정신적 불균형이나 부적응을 겪으면서 심리적 불안 요인이 자살의 위험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하상훈, 2000: 22). 또한 청소년의 자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족의 생활사건이나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 대중문화에 대한 과도한 노출, 가치관의 차이 등 사회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김운삼, 1997: 31-34).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휴

대폰, TV나 영상매체의 인명 경시적인 하위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상의 자살사이트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심리적 불안이 심해지고, 장기화되면 정신과적으로 정동장애나 행동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우울증, 약물남용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는 청소년자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rent et al., 1986: 666-673).

2.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가출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한 문제에 대해 반발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의 승인 없이 최소한 하루 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행위(김준호, 1997: 50-52)로 정의된다. 가출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가정의 보호로부터 이탈되어 24시간 또는 48시간 이상 집 이외의 장소에서 머무른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규정된다(Deborah, 1994: 2016; Welsh, Archambault, Janus & Brown, 1995: 3-4; Robert, 1991: 37).

청소년의 가출을 자발적 행위로 간주하여 그 책임을 청소년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가출하게 된 동기나 배경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가출은 단일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가정의 결손이나 불화와 같은 가정문제에서 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또래친구의 유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첫째, 개인적 요인 중 정서적 요인으로서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청소년들에 비해 자아개념이 낮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자기 의심이 많으며 방어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심리검사에서도 반사회성이나 우울과 같은 강박적인 요인들이 높게 나타나는데(서울YMCA, 1995: 21), 이러한 결과는 만성화되고 잠재된 문제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 중 행동적 요인으로는 약물남용, 비행, 부적절한 성적 표현, 공격성, 적절한 통제의 어려움, 피해의식, 자살기도, 가족에 대한 반발 등으로 나타난다(표갑수, 1996: 323). 둘째 가족 요인으로서, 대부분의 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정에서의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Fergusson & Lynsky, 1995: 1308-1317).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자의 자녀는 부모의 중독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며(복지와 사람들, 2000: 6), 정서, 행동, 사회적 측면에서 불안, 공포, 혼돈, 불신, 감정적 고립 등의 정서적 불안정이 또래 청소년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두통이나 우울증을 보일 수 있고, 그들도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할 위험이 높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자살생각이나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Rudd, Joiner & Rajab, 1996: 541-550). 가족 내에 정신질환자가 있는 경우 다른 가족원에게 정서적 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우울증이나 폐쇄적 행동 등을 보이기도 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행동의 위험이 증대되기도 한다(Wagner, 1996: 246-298). 셋째, 또래 요인으로서 청소년들은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친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걱정이나 문제가 생기면 교사나 부모보다는 친구와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래집단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학교요인으로서 학업부적응이나 교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등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가출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신림청소년쉼터, 2003: 20). 다섯째,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법과 도덕, 규칙 등의 통제력을 결여하거나 확립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유해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문제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가출 이후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곳이 비디오방, 심야 시간의 PC방, 오락실 등 청소년 출입금지지역이라는 점은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3. 가출청소년의 자살 특성

일반적으로 자살이 나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DeMan & Leduc, 1995: 173-181) 나타나며, 자살행동은 청소년 중에서도 사춘기 이전 청소년보다 사춘기를 지난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Carlson & Cantwell, 1982: 261-268). 가출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이들이 길거리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길거리 요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게 되면 일반노숙인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토론토의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 중 대부분이 최소 6개월 이상을 길거리에서 지냈는데, 이들은 심한 약물남용자로 길거리에서 절도나 매매추행위와 같은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체포되기도 하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McCathy & Hagan, 1996: 412-430). 극도로 열악한 생활은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시도하게 하며,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자살 시도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둘째 가족 요인으로서, 대부분의 조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정에서의 신체적 또는 성적인 학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Fergusson & Lynsky, 1995: 1308-1317).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자의 자녀는 부모의 중독으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며, 정서, 행동, 사회적 측면에서 불안, 공포, 혼돈, 불신, 감정적 고립 등의 정서적 불안정이 또래 청소년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두통이나 우울증을 보일 수 있고, 그들도 약물이나 알코올을 남용할 위험이 높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자살생각이나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다(Rudd, Joiner & Rajab, 1996: 541-550). 가족 내에 정신질환자가 있는 경우 다른 가족원에게 정서적 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우울증이나 폐쇄적 행동 등을 보이기도 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행동의 위험이 증대되기도 한다(Wagner, 1996: 246-298).

셋째 외현화 요인으로서, 약물남용과 비행 및 공격적 성향이 이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 바로 부딪치는 문제가 잠자리와 음식 문제이다. 가출 후 친구 집 등 거처가 있다 하더라도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된다. 길거리에서 생활할 때 부딪치는 폭력이나 생존의 절박함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흡연과 음주 및 약물남용을 하기도 하고, 과거의 아픈 경험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적합한 약물의 남용은 청소년의 자살생각 및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Green & Ringwalt, 1996: 1041-1058). 비행이나 공격적 성향은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약물비행, 성비행 등 하나의 비행 유형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비행으로 이어지며, 인명경시적이고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 일상화되면 삶에 대한 비관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김향초, 2001: 195-196).

넷째 심리적 요인으로서,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우울감이 심할수록 자살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는데(Reifman & Windle, 1995: 239-354), 718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집단에서는 절망보다는 우울 요인이 자살생각과 보다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민섭 외, 1990: 8). 또 다른 조사에서도 가출청소년 조사대상자의 반 이상이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Unger, Kipke, Simon, Johnson & Montgomery, 1997: 371-394), 이러한 결과로 인해 청소년의 우울증이 자살생각과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Yoder et al., 1998: 284-288). 자아존중감 역시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Yang & Clum, 1996: 177-195). 가출청소년은 가정이 안전하지 못하며 가족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학교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은 더욱 낮아진다. 쉼터의 가출청소년과 일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조사한 결과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게 나타난 것(Welsh et al., 1995)은 가출청소년이 더 높은 수준의 자살위험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등 가출청소년보호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출청소년 중 임의로 표집된 110명과, 가출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서울시내 도심지역(대학로, 강남, 신림, 신천, 화양리, 뚝섬 등)의 PC방, 찜질방, 유원지, 공원, 길거리 등에서 만난 40명 등 총 150명을 대상으로 한다.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은 연구자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전화로 설문조사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길거리에서 만난 가출청소년들은 이들이 배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밤 10시 이후에, 사전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전공 대학원생들의 일대일 면접에 의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자살생각과 행동이고, 독립변인은 길거리요인, 가족요인, 외현화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또래 요인이다. 또래 요인은 청소년의 특성상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걱정이나 문제가 생기면 교사나 부모보다는 친구와 의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과 관련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 1) 자살생각과 행동 : Harlow, Newcomb 및 Bentler(1986: 5-21)가 완성하고 조현진(1990)이 번안한 자살관념척도(SIS, Suicide Ide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살에 대한 사고, 죽는다는 것에 대한 고려, 미래의 자살행동에 대한 예측, 타인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한 경험, 자살시

도 경험에 대한 빈도를 평정하는 것으로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충동이 높은 상태이다. 조현진의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2) 길거리 요인 : 가출청소년의 길거리에서의 학대에 대한 설문은 Whitbeck 등(1999: 284)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없는 경우, 한두 번 있는 경우, 서너 번 있는 경우, 5회 이상 있는 경우로 4점 척도이며, Cronbach's $\alpha = .74$ 이고,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3) 가족 요인 : 가출청소년의 가족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구성원 중에 거의 매일 한 가지 이상의 알코올 또는 약물(부적절한 약물-각성제, 코카인 등)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서적 문제(우울, 불안장애,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신체·언어적 폭력이나 성적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알코올/약물 문제와 정서적 문제, 그리고 성적학대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이분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고, 신체·언어적 폭력은 Straus(1979: 75-88)가 만든 CTS척도를 김준호(1997)가 수정하여 사용한 것과 최자은(1998)이 사용한 것 중 폭력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신체폭력부위(3문항), 폭력행사방법(6문항), 언어적 폭력(5문항) 등 세 가지 영역이고, Cronbach's α 값은 각각 .78, .75, .84이고, 본 연구에서는 .88, .88, .92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4) 가출청소년의 외현화 요인 : 약물남용과 비행성향 및 공격적 행동을 조사하였다. 약물남용은 거의 매일 한가지이상의 약물(술, 부적절한 약물-각성제, 코카인 등)을 사용하는지를 이분변수로 평가하였다. 비행성향 및 공격적 행동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Youth Self Rating: YSR)를 중앙적성연구소(1993)에서 한국판으로 개발한 한국판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ating: K-YSR) 중, 외현화 문제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타

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의 외현화되고 과소통제된 행동(undercontrolled behavior)을 평가하는 척도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3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6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1$ 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 5) 가출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 자아존중감 척도로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Rosenberg, 1965: 146-147)을 윤미숙(2000: 49-5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며, 본 연구에서는 .62로 나타났다. 우울감 척도는 Radloff(1977: 385-401)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을 조현진(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언제나 그렇다’까지 4점 척도 2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고,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 6) 또래 요인 : 친구 중에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한 친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이분변수로 처리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과 행동, 일반적인 특성, 길거리 요인, 가족 요인, 외현화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또래요인 등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자살생각과 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총 150명 중에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0)

구 분		N (%)	Mean(S.D.)
성별	남 자	58 (38.7)	-
	여 자	92 (61.3)	
생활하는 곳	청소년보호시설	110 (73.3)	-
	길거리	40 (26.7)	
연령	13세	3 (2.0)	16.5(1.7)
	14세	22 (14.7)	
	15세	21 (14.0)	
	16세	26 (17.3)	
	17세	32 (21.3)	
	18세	28 (18.7)	
	19세	18 (12.0)	
교육수준	초졸이하	12 (8.0)	-
	중재 - 중졸	87 (58.0)	
	고재 - 고졸	51 (34.0)	
직업유무	있다	11 (7.3)	-
	없다	139 (92.7)	
월평균수입 혹은 용돈 (만원)	전혀없음	53 (35.3)	8만7천원 (18만7천원)
	3만원이하	43 (28.7)	
	4만원 -10만원	31 (20.7)	
	11만원-30만원	12 (8.0)	
	31만원이상	11 (7.3)	
가족형태	부모 모두 있음	48 (32.0)	-
	부모 이혼	37 (24.7)	
	어머니사망	24 (16.0)	
	부모 없음	13 (8.7)	
	아버지사망	12 (8.0)	
	부모 별거 중	11 (7.3)	
	기타(친척, 조부모)	5 (3.3)	

여자가 61.3%(92명)로 남자보다 많았는데 이는 서울시의 청소년쉼터 7개 중 5개 시설이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많은 가출청소년시설이 여자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연령평균은 16.5세였고, 13세를 제외하고 14세부터 19세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길거리에서 지내는 가출청소년의 비율이 26.7%(40명)였는데 이는 길거리에서의 면접 특성상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은 중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경우가 58.0%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거의 대부분인 92.7%가 없었으며, 월평균수입은 평균 8만7천원이었으나 전혀 없는 경우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처음 가출한 경우 수입을 올릴 수단이 없으나 가출경험이 쌓일수록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형태는 부모 모두 있는 경우가 32%(48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약 4분의 1(37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가출관련 특성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처음 가출한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가 대부분이었고, 가출회수는 2~3회가 37.3%로 가장 많았고, 10회 이상도 29.3%나 되었다. 최근 가출하여 생활한 기간은 평균 71.7일로 최소 1일부터 최대 34개월까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가출한 후 생활한 곳은 반 이상인 52%(78명)가 PC방, 노래방, 만화방, 당구장에서 지냈거나 길거리를 배회하며 지냈다고 응답하였다. 가출한 후 잠을 잔 곳은 친구집이 34.7%(52명)로 가장 많았고, 쉼터 및 상담실(7.3%)과 주유소 등 취업한 곳(4.7%)을 제외하면 전체의 절반가량인 49.3%(74명)가 PC방, 찜질방, 노숙 등 안전이 취약한 곳에서 밤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가출관련 특성

(n=150)

구 분		N (%)	Mean(S.D.)
처음가출한 시기	초1 ~ 3	19 (12.7)	-
	초4 ~ 6	36 (24.0)	
	중1	34 (22.7)	
	중2	29 (19.3)	
	중3	20 (13.3)	
	고1	11 (7.3)	
	고2	1 (0.7)	
지금까지 가출한 회수	1회	14 (9.3)	12.7(30.1)
	2 ~ 3회	56 (37.3)	
	4 ~ 9회	36 (24.0)	
	10회 이상	44 (29.3)	
최근가출 생활기간	1주일 미만	56 (37.3)	71.7(147.2)
	1주일 이상 ~ 1개월 미만	30 (20.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0 (20.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2 (8.0)	
	6개월 이상	22 (14.7)	
가출한 후 생활한곳	친구집	72 (48.0)	-
	PC방, 노래방, 만화방, 당구장	47 (31.3)	
	길거리배회	31 (20.7)	
가출한동안 잠을 잔 곳	친구집	52 (34.7)	-
	찜질방, 사우나	38 (25.3)	
	PC방	21 (14.0)	
	쉼터 및 상담실	11 (7.3)	
	노숙(길거리, 건물, 지하도등)	10 (6.7)	
	주유소 등 취업 후 숙식	7 (4.7)	
	여관	3 (2.0)	
	만화방	2 (1.3)	
	기타	6 (4.0)	

2.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과 행동 특성

<표 4>는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과 행동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반 이상인 54.7%(82명)가 있다고

<표 4>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과 행동 특성

(n=150)

구 분			N (%)
자살생각과 행동	자살생각 경험	전혀 없다 그렇다	68 (45.3) 82 (54.7)
	최근 (한 달간) 자살생각 경험	전혀 없다 그렇다	100 (66.7) 50 (33.3)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한 경험	전혀 없다 그렇다	89 (59.3) 61 (40.7)
	자살로 생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	전혀 없다 그렇다	107 (71.3) 43 (28.7)
	자살시도 경험	전혀 없다 한 번이상	85 (56.7) 65 (43.3)

응답하였으며, 최근 한 달 동안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3분의 1인 33.3%(50명)였다.¹⁾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40.7%, 자신의 삶이 자살로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경우는 28.7%(43명)였으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43.3%(65명)에 달해 이들의 자살생각과 행동이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사한 연구(Yoder et al, 1998: 761)에서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이 53.9%, 자살시도율이 26.3%인 것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더 높은 결과이다.

<표 5>는 자살에 관한 뉴스와 자살사이트를 접해본 경험에 관해 보여주고 있다. 자살에 관한 뉴스를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88.0%(132명)로 언론의 자살관련 보도를 상당수가 접해본 것

1) 자살생각은 구체적인 일시를 알 수 없는 관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상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일 수 있으며 최근 한 달간의 자살생각이 자살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기에 적절하다.

으로 나타났다. 자살사이트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8.7%(28명)였고, 접속시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54.7%(82명)였는데, 이는 일반청소년의 자살사이트 접속경험이 7.3%이고 접속시 자살충동을 느낀 비율이 21.7%라는 연구(하연희, 2000: 4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표 5> 자살뉴스 접해본 경험과 자살사이트 접속경험

(n=150)

구 분			N (%)
자살뉴스 및 소식	접한 경험	있다	132 (88.0)
		없다	18 (12.0)
	들었던 생각	왜죽었을까	44 (29.3)
		불쌍하다	43 (28.7)
		죽고싶었다	16 (10.7)
		용기있다	9 (6.0)
		비겁하다	7 (4.7)
		아무생각없었다	26 (17.3)
자살사이트	접속 유무	있다	28 (18.7)
		없다	122 (81.3)
	접속시의 자살생각	전혀 없다	68 (45.3)
		생각함	82 (54.7)

3. 가출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살생각 및 행동

<표 6>은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및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성별에 따른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을 살펴보면 여자의 경우 자살생각 및 행동이 평균 11.9(sd=4.7)로 남자의 8.9(sd=4.0)보다 높았고, 이는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자살생각과 행동에 있어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Cole의 연구(1989: 248-255)와 일치하는 것이다. 생활하는 곳에 따라 서로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의 청소년보다 길거

<표 6> 일반적인 특성과 자살생각 및 행동

(n=150)

변 인	집 단	Mean (S.D.)	t / F
성 별	남 자	8.9 (4.0)	t = -4.064**
	여 자	11.9 (4.7)	
생활하는 곳	복지시설	10.27 (3.91)	t = -1.711 ⁺
	길거리	12.05 (6.13)	
교육정도	초졸 이하	10.2 (5.8)	F = 0.848
	중재 ~ 중졸	11.0 (4.6)	
	고재 ~ 고졸	10.5 (4.6)	
직업유무	있다	13.1 (4.4)	t = 1.748 ⁺
	없다	10.6 (4.7)	
월평균수입 혹은 용돈	3만원~10만원미만	10.4 (4.0)	F = 0.792
	10만원~30만원미만	12.8 (6.2)	
	30만원 이상	11.4 (4.8)	
가족형태	어머니사망	9.29 (3.63)	F = 0.678
	아버지사망	11.42 (3.29)	
	부모 이혼	10.84 (4.66)	
	부모 별거 중	11.27 (6.97)	
	부모 없음	9.85 (5.35)	
	부모 모두 있음	11.38 (4.74)	
	기타(친척, 조부모)	10.60 (3.44)	

** p < .01 * p < .05 + p < .10

리의 가출청소년들의 자살생각 및 행동 수준이 더 높았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정도와 직업유무, 월평균수입, 그리고 가족형태 등에 따른 자살생각과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알아보았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0.8 이상의 상

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길거리 요인, 가족요인, 외현화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또래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8>에 나타나있다. 모델 1은 통제변인인 일반적 특성 변인만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고, 모

<표 8>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

변 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일반적 특성	성별	-3.49	-.37**	-3.00	-.32**	-3.23	-.34**	-3.28	-.35**	-2.27	-.24+	-2.12	-.22*
	거주유형	2.30	.22	1.50	.14	1.89	.18*	1.39	.13	1.54	.15	1.12	.11
	직업유무	1.47	.08	1.64	.09	.61	.03	1.59	.09	1.05	.06	.05	.01
	교육정도	-.06	-.02	-.07	-.03	.13	.05	.08	.03	.05	.02	.01	.01
	가출회수	.01	.09	.01	.08	.01	.07	.01	.05	.01	.04	.01	.04
	첫가출시기	-.20	-.10	-.08	-.04	-.12	-.06	.04	.02	.04	.02	-.02	-.01
길거리 요인	물건빼앗김			-.33	-.06	.14	.03	.43	.08	.50	.10	.52	.10
	구타경험			1.27	.22	1.24	.21	1.02	.17	.41	.07	.69	.12
	흥기공격경험			1.42	.22	.71	.11	.43	.07	.21	.03	.50	.08
	위협당한경험			-.19	-.03	.60	.09	.70	.10	.82	.12	.90	.13
	죽음위협경험			-.21	-.03	-.59	-.07	.11	.01	-.25	-.03	.51	.06
	불법강요경험			-.39	-.08	-.11	-.02	.47	.09	.39	.08	.30	.06
	음식학대경험			1.66	.19	1.57	.18	1.64	.19	1.36	.16	1.64	.19+
	성폭력경험			.95	.13	.86	.12	.51	.07	.56	.08	.68	.10
가족 요인	가족중앙콜중독					-.32	-.03	-.02	-.01	.14	.01	.09	.01
	가족중약물중독					1.49	.07	2.01	.09	2.58	.12	3.54	.16+
	가족중정서문제					.98	.06	.71	.04	.66	.04	.81	.05
	가족의성학대					2.17	.13**	2.64	.16+	2.50	.15+	2.79	.17+
	가족의신체학대					.11	.30	.05	.16	.04	.13	.03	.09
외현화 요인	약물남용경험							1.06	.11	.80	.08	.80	.08
	비행 공격성							.19	.20	.21	.22	.11	.11
심리적 요인	우울							.07	.12	.02	-.05	.02	.03
	자아존중감									.19	.42**	.16	.36**
또래 요인	친구의자살시도									-.12	-.11	-.10	-.10
	친구의자살											2.84	.27**
상수			15.16**		13.32**		11.68**		10.26**		7.26**		8.34**
F			4.41**		3.03**		3.24**		3.61**		4.86**		5.41**
R ²			15.6		23.9		32.1		38.7		48.5		53.6

** p < .01 * p < .05 + p < .10

텔 2는 일반적 특성 외에 길거리 요인을 투입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3, 4, 5, 6은 각각 가족요인, 외현화요인, 심리적 요인, 또래요인을 차례로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6가지의 모델은 모두 $p < .01$ 수준에서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각 모델에 대한 설명력은 모델 1에서 모델 6까지 15.6%에서 53.6%까지 향상되었다. 6개의 모델 모두에서 성별($\beta = -.37 \sim -.24$)이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수준이 더 높았다. 거주유형($\beta = .22, .18$)은 일반적인 특성만을 투입했을 때와 일반적인 특성과 길거리 요인, 그리고 가족요인을 투입했을 때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거리의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이 시설의 가출청소년보다 $p < .05$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 요인 중 음식학대²⁾, 즉 음식을 못 먹도록 강요당한 경험($\beta = .19$)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과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델 6, 즉 길거리 요인과 가족요인, 외현화 요인, 심리적요인, 그리고 또래 요인을 투입하였을 때 유의수준 $p < .10$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족요인 중에는 일반적인 특성을 비롯한 모든 요인을 투입한 모델 6에서 가족 중에 약물경력이 있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beta = .16$), 자살생각과 행동이 $p < .10$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으로부터 성학대를 받은 경험($\beta = .13 \sim .17$)이 있는 경우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델 3부터 모델 6까지 일관되게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을 투입한 모델 5, 6에서는 우울감($\beta = .42, .36$)이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우울감이 클수록 자살생각과 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감이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Reifman & Windle, 1995: 239-354; 신민섭 외, 1990: 8; Unger et al., 1997: 371-394; Yoder et al., 1998: 284-288)과 맥을 같이 한다. 또래 요인을 투입한 모델 6에서는 또래친구 중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

2) 음식학대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적절한 음식을 먹을 수 없거나, 혹은 확보한 음식을 주변사람들로부터 빼앗기는 상황을 말한다.

우($\beta=.27$)가 자살생각과 행동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들 중 길거리에서 지내는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등 가출청소년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므로써, 지금까지의 청소년자살에 관한 연구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가출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 110명과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 40명을 각각 설문조사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과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특성, 길거리 요인, 가족요인, 외현화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또래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처음 가출한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기간에 집중되어 있고, 거의 모두가 재가출 경험이 있으며, 거의 절반가량이 가출한 지 한 달 이상으로 청소년가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 후 생활하고 잠을 자는 곳이 PC방, 찜질방, 또는 길거리 등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보았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생각과 행동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을 하게

된 배경과 더불어 가출 후의 열악한 환경이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거의 모든 응답자가 언론매체를 통해 자살에 관한 뉴스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자살사이트에 접속해 본 경험도 다섯 중에 한 명꼴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남자보다 여자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그리고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보다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경우가 더 높은 수준의 자살생각과 행동을 나타낸 것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며 직업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출 후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가족 중에 약물경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지의 여부, 가족으로부터 성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우울성향의 정도, 그리고 친구 중에 자살을 시도한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출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하여 예방 차원과 대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예방 차원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의 가출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잠재해 있거나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가출 및 자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다차원적인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의 가출과 자살이라는 일련의 사건 배경에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역복지관 등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사업과 학교적응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은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가출이나 자살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아 피해가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세대 간 학습되어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 사업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가출 예방과 자살 방지를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공동의 관심으로 이슈화시켜서 캠페인 형식의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대처 차원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길거리 생활을 할 때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떠한 원인으로 가출을 하였든지 청소년이 일단 가출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상황이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출청소년보호시설이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있어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보호시설을 위주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안전이 보장되는 가운데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나아가 가출청소년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회복을 돕기 위한 기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살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가정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한가지이다. 일을 하는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이 일하지 않는 가출청소년보다 오히려 높았던 것은 가출청소년의 일자리가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일자리의 제공이 가출청소년 본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자살을 전문적으로 다룰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쉼터나 길거리에서 자살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찾아내고 거리상담을 하며, 필요할 경우 위기개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할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보건복지부, 2004)에서 국가 자살률을 줄이고 예방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단체, 공공기관, 전문가 등의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개입을 통해 예방과 개입, 사후

개입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길거리 설문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표집의 수가 150명으로 제한되었으며, 따라서 전체 가출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일부 독립변인에 대한 유의수준이 0.10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설명력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출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한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운삼(1997). 청소년 자살동기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준호(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문화관광부(2002). 2002년도 청소년백서.
- 김향초(2001).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박경애·구본용·김원중·송중용(1993). 청소년 자살행동연구. 청소년상담 문제연구보고서-3,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보건복지부(2004).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
- 복지와 사람들(2000), 알콜중독자 자녀에 대한 개입전략과 실천기법, 제2차 워크숍 자료집.
- 서울YMCA(1995). 청소년쉼터리포트.
- 석재호(1979). 자살. 인간과학, 제3권 제10호.
- 신림청소년쉼터(2003). 우리세상. 가출청소년의 거리청소년화, 쉼터5주년 기념 워크숍.
- 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1호.
- 윤미숙(2000).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명지대학교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진(1990). 우울, 자기비하 및 삶의 의미가 자살관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적성연구소(1993). K-YSR :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매뉴얼.
- 최자은(1998).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태산(1997). 청소년 비행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가족역동의 심리적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4). 2003년 사망원인통계.
- 표갑수(1996).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 하상훈(2000).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연희(2000). 중학생의 자살생각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Youth-Self-Report 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Burlington: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 Andrews, J. A. & Lewinsohn, P. M.(1992). Suicidal Attempts among Older Adolescents: Prevalence and Co-occurrence with Psychiatric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1.
- Brent, D., Kalas, G., Edelbrock, C., Costello, A., Dulcan, M., & Conover, N.(1986). Psycho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al Ide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Psychiatric*, Vol. 21.
- Carlson, G. & Cantwell, D.(1982). Suicidal Behavior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21.
- Deborah, B.(1994). Runaway and Homeless Youth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Ed., Washington D.C. : NASW Press.
- DeMan, A. & Leduc, C.(1995). Suicidal Ideation in High School Student: Depression and Other Correlate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Vol. 51.
- Fergusson, D. & Lynsky, M.(1995).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in a Birth Cohort of 16-year-old New Zealanders, *The American Journal of Academy Psychiatry*, Vol. 34.

- Green, J. M. & Ringwalt, C. L.(1996). Youth and Familial Substance Use's Association with Suicide Attempts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Substance Use & Misuse*, Vol. 31, No. 8.
- Harlow, L., Newcomb, M., & Bentler, P.(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42.
- McCathy, B. & Hagan, J.(1996). Surviving on the Street: The Experience of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7.
- Radloff, L. 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1.
- Reifman, A. & Windle, M.(1995). Adolescents Suicidal Behaviors as a Function of Depression, Hopelessness, Alcohol Use, and Social Support: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
- Robert, A. R. *Runaways and Non-Runaways*, 나동석 · 이용교 역(1991), 가출청소년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Rohde, P., Seeley, J. R., & Mace, D. E.(1997). Correlates of Suicidal Behavior in a Juvenile Detention Popul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7, No. 2.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eram-Borus, M. J.(1993). Suicidal Behavior and Risk Factor among Runaway Youth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52, No. 2.

- Rudd, M., Joiner, T., & Rajab, M.(1996). Relationships among Suicide Ideators, Attempts, and Multiple Attempters in a Young-Adult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05.
-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1.
- Unger, J., Kipke, M., Simon, T., Johnson, C., & Montgomery, S.(1997). Homeless Youths and Young Adults in Los Angeles: Prevalence of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5, No. 3.
- Wagner, B.(1996). Family Risk Factors for Child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Psychology Bulletin*, Vol. 121.
- Wagner, B. & Cole, R.(1995). Psychosocial Correlates of Suicide Attempts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Youth, *Suicide &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5, No. 3.
- Welsh, L., Archambault, F., Janus, M., & Brown, S.(1995). *Running for Their Lives*, N.Y. : Garland Publishing. Inc.
- Whitbeck, L. B., Yoder, K. A., & Hoyt, D. R.(1999), A Risk-Amplification Model of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Runaway and Homeless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iatry*, Vol. 27, No. 2.
- Yang, B. & Clum, G. A.(1996). Effects of Early Negative Life Experiences on Cognitive Functioning and Risk for Suicide, *A review of Clinical Psychiatry*, Vol. 16.
- Yoder, K. A., Hoyt, D. R., & Whitbeck, L. B.(1998). Suicidal Behavior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7, No. 6.

ABSTRACT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of Runaway Youths

Noh, He-Len* · Kim, Hyoung-Tae* · Lee, Jong-Ik**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purpose of finding out the psycho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of runaway youths. A cross-sectional survey of 150 runaway youths from youth shelters and city streets revealed that females more than males and youths living in streets more than those living in shelters tended to exhibit higher levels of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The factors that influenced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were as follows: 1) whether or not the youth had ever been stopped from eating (food abuse), 2) whether or not there is a history of substance abuse in the family, 3) whether or not the youth experienced sexual abuse from a family member, 4) level of depression, 5) whether or not the youth has a friend who had attempted suicide. Based on the results,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among runaway youths are suggested.

Key Words : adolescents, runaway, runaway youths, suicide, youth suicide

투고일 : 4월 25일, 심사일 : 6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

* Soongsil University

** Song-pa Technical High School